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4월 27일(수), 오후 2~4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I . 머리말

가. 고적조사 사업과 경주 서봉총의 발굴 배경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①대한제국시대와 일제강점기 초기의 고적조사사업(1895년~1915년), ②고적조사위원회 운영시기(1916년~1932년), ③고적조사연구회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운영시기(1933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한제국시대와 일제강점기 초의 고적조사사업은 소위 ‘關野貞’ 팀(谷井濟一, 栗山俊一 등)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10년 이후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주로 공주, 창녕, 고령, 영산, 함안 등을 조사하였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神功王侯의 삼한정벌(200년)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세키노 다다시의 전공이 건축이어서 조사는 사찰이나 탑 등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고분은 가야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보면 유적, 유물의 전체적인 파악이 목적이었다.

이런 중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하면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설립하고,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통해 조선총독부에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와 발굴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1916년도 고적조사의 방침은 한반도 초기 역사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역사를 한사군으로부터 설정하여 타율적이고 外因論的 역사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기의 조사는 한사군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황해, 평안남북, 경기, 충청북도를 주로 조사하였다. 1917년 이후에는 평양에서 벗어나 창녕, 경주, 양산 등에 조사를 집중하였는데 이는 일선동조론을 강하게 제기했던 교토학파의 영향이었다. 1918년에 이르러서야 黑板勝美 등이 비로소 경주에서 신라 고총인 보문리 적석총을

발굴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로이타 가쓰미의 보문리 적석총(실제로는 적석목곽분)의 발굴은 신라 고총의 매장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즉 매장주체부를 덮고 있었던 적석을 이해하지 못한 일제 관학자의 한계로 인해 실패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신라 고총에 대한 일제 관학자들의 관심은 그 후 몇 년 동안 시들하게 된다.

하지만 몇 년 후 신라 고총에 대한 총독부박물관의 관심을 극적으로 고취시킨 일이 발생한다. 바로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신라금관이 확인된 것이다. 금관총에서 신라 금관을 수습한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24년에 금령총에서 다시 신라 금관을 발굴하게 되었다. 잇단 신라 금관의 확인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황금의 나라’ 신라에 매우 열광하였으며 서봉총 역시 이런 신라 금제품에 대한 기대를 기저로 하여 1926년도에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촉탁연구원이었던 小泉顯夫가 주도하여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발굴조사비를 충당할 수 없었던 고이즈미 아키오는 경동철도 경주정차장 부지에 봉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봉총의 봉토를 채굴하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고이즈미 아키오가 주도하였는데 총독부박물관의 사진기사인 澤俊一 역시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사와 슌이치는 서봉총 조사와 관련한 많은 양의 유리건판 사진을 남기게 되었으며 이 유리건판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유물로 관리되고 있다.

나. 총독부박물관의 유리건판

유리건판(Gelatin dry plate)의 탄생은 1871년 영국인 매독스(Richard Leach Maddox, 1816~1902)가 콜로디온을 대신해 젤라틴으로 만든 브롬화은 젤라틴 유제를 유리판에 도포한 건판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진필름유제의 원형이 바로 이것이다. 비네트(Charles Bennett, 1840~1927)가 유제를 숙성해서 감광도를 높이는 방법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

다양하게 개량되었다. 1879년에 스완(Sir Joseph Wilson Swan, 1828~1914)이 최초로 유리건판을 제품화했으며, 1883년에는 미국 이스트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1883년에 스완 유리건판이 일본에도 수입되어 1884년에는 일본 최초로 요시다 도쿄건판(吉田の東京乾板), 히노데건판(日の出乾板)이라고 불리는 유리건판이 제조·판매되었다. 이 시대의 건판제조는 소규모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졌다. 공업생산물로서 본격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초이다. 유리건판은 크기가 규격화되어 표준판인 소판(Half Plate, $4\frac{3}{4}'' \times 6\frac{1}{2}''$)¹⁾ 과 중판($6\frac{1}{2}'' \times 8\frac{1}{2}''$), 대판($10'' \times 12''$), 명함판(Carte de Visite, $3\frac{1}{4}'' \times 4\frac{1}{4}''$) 등이 주로 생산·사용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리건판은 일제강점기인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의 기초조사 사업을 위해 시행한 사진기록 작업의 결과물이다. 식민통치를 위한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유물과 유적, 발굴, 건축, 민속, 자연환경 등을 촬영한 38,000여 장의 유리건판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반유물과 함께 일괄 접수된 것이다.

유리건판은 습판과 다르게 본격적인 공업생산물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며 지금의 감광재료 규격에도 가깝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 중에는 사진촬영 후에 필요한 이미지만을 잘라내어 크기가 변형된 예도 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의 크기는 대판·중판·소판·명함판, 이렇게 4종으로 분류되며, 평균적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대 판 : 건판 크기 252×303mm, 화면 크기 247×297mm, 두께 1.5mm
- 중 판 : 건판 크기 164×214mm, 화면 크기 163×208mm, 두께 1.5mm
- 소 판 : 건판 크기 119×164mm, 화면 크기 115×160mm, 두께 1.5mm
- 명함판 : 건판 크기 82×107mm, 화면 크기 79×105mm, 두께 1.5mm

1) 일본에서는 캐비닛판(Cabinet size)으로 부르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리건판의 소판크기와 같다.

소장된 유리건판 38,000여 점 가운데 소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85.6%로 가장 많고, 대판이 약 8.5%, 중판이 약 4%, 명함판이 약 1.9% 정도이다. 이 중에서 서봉총과 관련된 유리건판은 현재까지 약 260점이 확인되어 전체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다.²⁾

II. 서봉총 관련 유리건판의 종류

유리건판 중 복분과 남분으로 이루어진 서봉총과 관련된 유리건판의 총 수량은 모두 256장이다. 이 중 금관이 출토된 복분과 관련된 것이 202장이며, 데이비드총이라고도 부르는 남분과 관련된 것이 54장이다.³⁾ 이 중 이번에 주로 살펴볼 것은 금관이 출토된 복분의 발굴과 출토유물을 촬영한 사진이다. 건판의 개략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번	촬영년도	원판번호	수량	촬영내용
1	1926	260236 ~ 260328	69	발굴 모습, 금관 등 유물 출토 모습, 구스타프 아돌프(스웨덴 황태자) 일행, 齋藤實(3대 총독) 현장 방문 모습
2		D260001~D260018	17	발굴 중 모습, 금관과 초두
3	1926 등	無165-1,2, 無224-13,9 M224-9,13, M312-1~9, M694-10,11, M899, M901-01, M902, M1052-2, M1153-4~13, M1110-12, M1120-10	76	발굴 광경, 구스타프 황태자 등 금관 등 출토 유물(연도 미상)
4	1927	M900-02~05	4	금팔찌, 금그릇, 유리팔찌, 유리그릇
5	1931	310002~310036	35	금귀걸이, 금반지 등 금관과 초두 제외 유물
6	1934	D340005	1	금관
합계			202	

표 . 서봉총 복분 관련 유리건판 사진 개요

2)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유리원판목록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대상 건판을 모두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 2017년 “경주 서봉총Ⅱ(유구편)” 발간 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것이다.

3) 유리건판의 수는 2016년 3월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향후 추가 확인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표를 살펴보면 서봉총 북분 발굴 광경과 출토된 유물을 촬영한 유리건판은 1926년, 1927년, 1931년과 1934년에 촬영되었다.⁴⁾ 원판 번호 중 ‘D’가 붙은 것은 대판이며 붙지 않은 것은 소판인데 소판의 촬영 수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수의 건판은 발굴연도인 1926년도에 발굴 광경을 찍은 것으로 소판이 많으며, 중요 유물인 금관과 초두는 실내에서 대판으로 3장을 찍었을 뿐이다. 1927년도에 유물을 찍은 4장이 있다. 1931년에 찍은 것은 금관을 제외한 소판 유물 사진으로 모두 실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혹 발굴조사보고서 간행을 위한 사전작업인지도 모르겠다. 그 외에 1934년도에 금관을 대판으로 다시 찍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Ⅲ. 서봉총의 발굴과 유리건판

가. 서봉총의 발굴 과정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남긴 서봉총 관련 유리건판의 많은 양이 발굴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1926년에 발굴조사한 서봉총 북분(금관 출토)과 관련된 사진은 발굴 전의 모습, 발굴 과정 중의 전경, 유물 출토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에 찍은 인물 사진 중 대표적인 것이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황태자 내외의 방문 사진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구스타프 황태자가 서봉총 금관을 들어 올리는 사진이다. 그 외에도 사이토 마코토 당시 조선 총독 일행의 방문사진이나 서봉총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사진도 있다.

나. 서봉총 금관과 관련된 사진 관리

서봉총 금관과 관련된 사진은 발굴 당시의 촬영 사진과 발굴 이후 실내에서

4) 원판의 일련번호 앞의 두 자리가 사진을 촬영한 연도이다. 즉 ‘26’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926년도에 찍은 사진이라는 뜻이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시절에 정리를 한 것이다. 또 ‘M’과 ‘無’는 일제강점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무번을 뜻하는 것인데 대판과 소판이 섞여 있다.

촬영한 사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발굴 조사 당시의 서봉총 금관을 촬영한 사진은 無901-3, D260003, 260283이나 260284-1⁵⁾ 처럼 금관이 발굴되었을 때의 사진이다. 또 발굴조사 이후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는 D260015와 D340005이 있다. 가장 이른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無901-3과 그 직후에 촬영된 D260003을 비교해 보면 세움 장식에 달았던 곱은옥의 위치가 일부 변동된 것이 확인된다. 또 소판인 260283는 대판인 D260003보다 늦은 시점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출토 상황의 변화는 고이즈미가 자서전에 기록했듯이 금관의 확인 이후 구스타프 황태자가 방문하기까지 며칠 동안 기다렸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해 준다.⁶⁾ 이후 1926년 실내에서 찍은 D260015는 당연히 현장 사진보다 늦은 시점일 테고 D340005는 1934년도에 찍은 사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34년도에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봉황이 1926년 사진과 달리 실로 고정되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어느 시점인가 금관의 상태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서봉총 금관 사진의 촬영 순서는 ‘無901-3 → D260003 → 260283 → 260284-1 → D260015 → D340005’이다. 사진의 비교만으로도 일제강점기 서봉총 금관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34년을 마지막으로 서봉총 금관을 촬영한 사진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봉총 금관과 관련된 몇몇 기록들은 존재한다. 즉 발굴조사자이자 평양부립박물관장이었던 고이즈미 아키오가 1935년 9월에 제1회 고적애호데이를 위해 경성에 보관 중이던 서봉총 출토 금관을 대여하여 평양에서 전시하였는데,

5) 이 사진을 복제한 사진이 260284-2번으로 존재한다.

6) 구스타프 아돌프 스웨덴 황태자 일행의 서봉총 발굴 현장 방문은 1926년 10월 10일자 매일신보에 보도되었다.

전시 직전에 ‘차륜파’ 라고 하는 기생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 사진을 찍은 일이다. 이 일은 이듬해인 1936년 6월 23일에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되어 소위 ‘금관 기생’ 이란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민중들의 公憤을 산 적이 있다. 그 후 1939년도에 서봉총 금관과 여기서 떨어진 것이 확실한 곱은옥 6개가 각각 다른 번호(본관14919와 본관14338)로 등록된다. 이는 분명 1934년과 1939년 사이에 금관에서 곱은옥이 떨어진 것은 보여주는 것으로 1935년의 평양전시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1926년 금관 발굴 이후 조사보고서 간행을 등한시켰던 고이즈미 아키오가 오로지 서봉총 유물의 전시에만 욕심을 부렸던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IV. 맺음말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서봉총 발굴과 출토 유물의 사진은 서봉총의 발굴 경위와 출토 유물의 관리의 일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일제 관학자들의 신라 고총의 관심이 고물 애호주의나 식민사관의 확립 등에 치우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잘못된 발굴이나 유물 관리 정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리건판 역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임은 명확하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길이 없는 현재의 연구자로서는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학자들의 행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김영민, 200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 건판」, 『宮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 건판 공필사진』
 김인덕, 2009, 「제1부 2장. 조선총독부박물관」, 『한국 박물관 100년사』, 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박진일·심수연, 2014, 『慶州 瑞鳳塚 I (遺物篇)』, 國立中央博物館
 국립중앙박물관, 2015, 『과학으로 풀어 보는 서봉총 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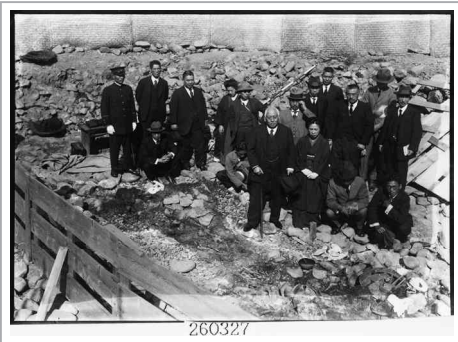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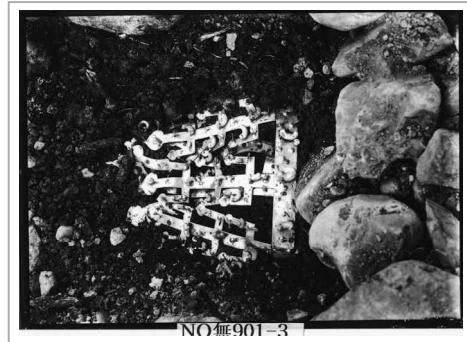
1. 서봉총 발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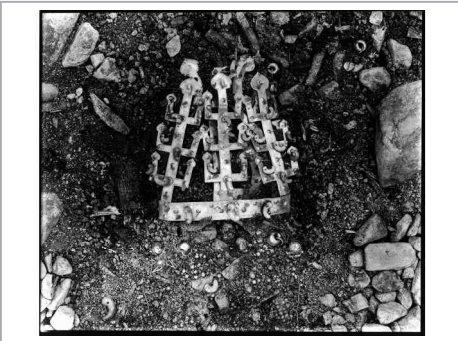
2. 금관을 보고 있는 구스타프 아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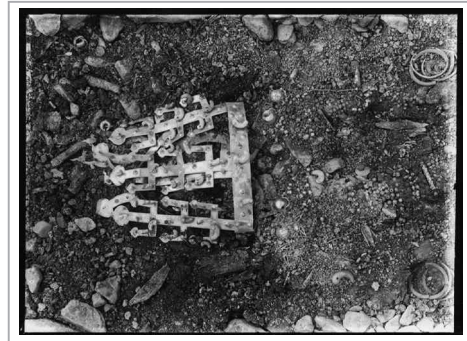
3.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일행



4. 서봉총 금관 출토 상태1 (無9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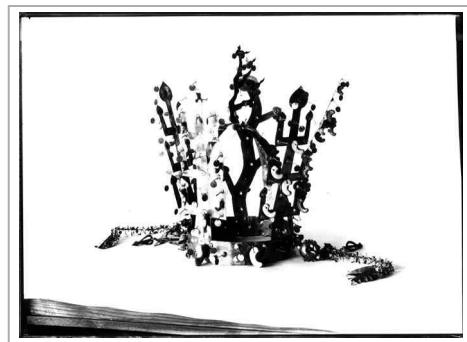
5. 서봉총 금관 출토 상태2 (D260006)



6. 서봉총 금관 출토 상태3 (260283)



7. 1926년 촬영 서봉총 금관 (D260015)



8. 1934년 촬영 서봉총 금관 (D340005)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	3.2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	3.30.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4	4.20.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은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5	4.27.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6	5.4.	가야 고적조사사업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7	5.11.	낙랑, 고구려 고적조사사업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8	5.18.	백제 고적조사사업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9	5.2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은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1.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1	6.8.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12	6.15.	답사(백제문화권)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3	6.22.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